

9/17/17

설교 제목: 깊고 견고해진 사랑 (아가서 7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7: 1-13

- (아 7:1)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 (아 7:2)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 (아 7: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 (아 7: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 (아 7:5)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 (아 7:6)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 (아 7: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 (아 7: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 (아 7: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 (아 7:10)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 (아 7:11)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 (아 7:12)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 (아 7:13)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목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5 장에서 있었던 신랑과의 갈등이 6 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자 이제 신랑과 신부 둘은 보다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아 7:1)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동글어서
속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신랑은 신부를 가리켜 '귀한 자의 딸' 다시 말해 '왕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부 솔람미 여인은 본디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귀한 집안의 딸이었다면 포도원에 나가 얼굴이 검게 타도록 따가운 햇볕 아래서 일을 했을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은 솔로몬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의 딸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장에서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찬사를 보냅니다.

솔로몬 왕은 4장과 6장에서도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혼인식 할 때였고 6장에서는 곁길로 나갔던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신부에 대한 변치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변치않는 지속적인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한 신부에 대한 신랑의 찬사는 배꼽, 유방을 지나 목, 눈, 코, 머리, 머리털에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진 성도는 이와같이 완전히 아름답습니다.

신랑은 먼저 신을 신은 신부의 발이 심히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신을 신었다는 사실은 신분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신을 신지 못하였고 신을 신을 수 있는 자유인들도 신분에 따라 신는 신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면서 자기 종들에게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눅 15: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또한 성도들의 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발걸음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넓적다리는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다고 말합니다.

넓적다리는 관절과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바르게 걷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 7:2)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 7: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 7: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 7:5)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배꼽마저도 그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허리는 백합화 향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추수 후의 밀단처럼 만족감과 풍성함을 느끼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선 4 장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방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유방을 암사슴의 쌍태 새끼에 비유해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목은 4 장에서는 '다윗의 망대'에 비유했는데 여기에서는 '상아 망대'에 비유하였습니다.

목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목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듯이 성도의 믿음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지체들인 성도를 연결합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에 비유하였는데 맑고 깨끗한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에 비유하였는데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레바논의 망대는 원수인 다메섹을 대면하는 도도하고 담대함, 난공불락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것은 갈멜산이 뛰어나게 드러나고 비옥하며 초목이 무성한 것같이 성도들의 생각과 정신이 뛰어나게 드러나며 지식과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머리털이 자주빛 같다는 것은 신부의 존귀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주빛은 옛부터 왕이나 부자들이 사용했던 색입니다.

신랑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마는 신랑 솔로몬 왕에게 있어 신부 술람미 여인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뜻의 이름이 말해 주듯 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아 7:6)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 7: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 7: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 7: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즐거워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사랑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되신 당신과 연합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이와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교회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법적으로 거룩하여 흠도 점도 없이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네 키는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종려 나무처럼 곧고 푸르고 무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곧게 하나님만 바라 볼 때 세상에서의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오셔서 성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실 것입니다.

‘네 유방은 포도 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의 의미는 성도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달콤하고 맛이 좋을 것이며 성도가 발하는 향이 풍미로울 것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통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 7:10)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랑의 찬사에 대한 신부 솔람미 여인의 화답입니다.

먼저 신부는 자신의 소속에 대해 말합니다.

여태까지 신부는 자신의 소속에 대해 세 번 언급했습니다.

세 번의 언급을 자세히 살펴 보면 신부의 사랑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가 2:16)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 6:3)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 7: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2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라고 시작한 것으로 보아 사랑이 내 중심적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5 장에서 사랑에 갈등이 오고 6 장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라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7 장에 이르러서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소속시키며 신랑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온전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되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부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고 고백하듯이 신랑 솔로몬 왕은 신부 솔라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투는 대신에 화목하고 원수를 갚기 보다는 용서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거짓과 가식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7:11)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 7:12)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3)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다

이제 신부는 신랑과 보다 깊은 사랑을 나누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은밀하고 한적한 곳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열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숙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한가지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2장에서 신랑 솔로몬 왕이 했던 말입니다.

(아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 2: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은 말을 지금에 이르러서 신부인 솔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솔람미 여인은 진실로 신랑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부가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말한 대목에서 신랑과의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갖고픈 신부의 열망이 엿보입니다.

신부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봄으로써 신랑과의 사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입었고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영혼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움에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라는 대목에서 신부의 보다 깊은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기 원하는 소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합환채'는 가지과의 다년생 식물로 잎은 컴프리 또는 근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합환채를 갖기 위하여 언니인 레아가 가지고 있던 합환채를 건네 받는 대신 그날 밤 남편 야곱을 언니에게 보내 주었던 것으로 보아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정력제 혹은 임신 촉진제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낸다는 말은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문 앞에 각양의 귀한 실과들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귀한 실과들은 성도들이 맺은 성령의 열매들이요 목회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 간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되십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들과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놓읍시다.
그리고는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증거물로 내놓읍시다.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